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71 호

2017 년 12 월 15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Fair Player Club 반부패 세미나 – 중국 사회책임경영 및 반부패 정책 동향 개최 안내 (12/20)
2. 2017 기업과 인권 UN 포럼 참여 결과 (11/27~29, 제네바)
3. 주한EU대표부, 유럽상의회가 함께 하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개최 결과 (12/5)
4.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 안내

■ 본부 소식

1.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 사례
– 방문판매로 생명을 살리는 리빙 굿즈 (Living Goods)

2. 라틴 아메리카 리더들, 에콰도르에서 비즈니스 기회로써의 SDGs 대응방안 모색

■ SDGs 소식

1. [Goal 4, 12] 국내 SDGs 우수이행 사례 - DGB금융지주
2. [SDGs 시장 기회] 조기 경보 및 예보 서비스

■ 회원사 뉴스

1. 롯데 "내년부터 연장근무방지 'PC 오프제'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2. 김동연 "LG는 협력업체 상생 모범"...구본준 "8500억원 상생기금 조성할 것"
3. 신한금융의 통큰 사회공헌...2700억 쏟아

■ CSR 뉴스

1. 농축산 선물 올리고 경조사비 내리고...권익위 표결 없이 의결
2. 국세청,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전면 차단 나선다
3. 일과 삶 중 선택은? 10명 중 7명 "연봉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
4.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집중검사한다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7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Fair Player Club 반부패 세미나 – 중국 사회책임경영 및 반부패 정책 동향 개최 안내 (12/20)



한국중국상회,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오는 12월 20일 (수)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중국 CSR 및 반부패 동향>을 개최합니다.

중국에 진출·투자하는 우리 기업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중국 CSR·자선법 및 반부패 법제 및 정책 소개, 준법·윤리경영 가이드라인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부패 리스크 방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본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은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전 세계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유일한 한국 프로젝트로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준법·윤리경영 교육, 연구, 자가진단(Self Assessment) 등 다양한 인식제고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사 개요 일시: 2017년 12월 20일(수) 14:00 - 17: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B2F)
 주최: 한국중국상회,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관: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3:30~14:00	30' 등록 및 네트워킹 리셉션
	14:00~14:10	10' 개회사/축사 - 俞海燕(위하이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중국국제상회 한국대표부 수석대표 및 한국중국상회 집행회장 -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14:10~14:50	40' 중국의 CSR 법과 제도 동향 - 김민선,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부교수
	14:50~15:30	40' 중국 반부패법·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Hui Xu, Latham & Watkins 파트너
	15:30~15:40	10' 휴식 (Coffee Break)
	15:40~16:00	20' 아시아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소개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책임연구원
	16:00~16:50	50' 기업 사례 발표 - (주)LG - 이은주, 지멘스(주) 윤리경영실 차장
	16:50~17:00	10' 페어플레이어클럽 소개 및 반부패 서약 안내 - 안젤라 강주현,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

* 중국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세미나 신청 바로가기\]](#)

2. 2017 기업과 인권 UN 포럼 참여 결과 (11/27~29,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증진 및 이행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이 11/27 ~ 11/29일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 포럼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가장 큰 국제 회의입니다. 유엔 및 국제기구, 정부, 기업, 시민단체, NGO, 국가인권기구, 노동조합, 학계 등에서 2,500여 명이 참여하여 인권 존중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효과적인 구제 접근 실현 (Realizing Access to Effective Remedy)'을 주제로 2개의 기조 세션과 80여 개의 분과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다양한 세션에 참여하여 기업과 인권에 관한 최근 동향 파악, 상호 학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UNGC 본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미팅 참여, UNDP 방콕 사무소 기업과 인권 담당관 미팅, UNGC 각국협회 담당자 미팅을 통해 상호간 활동을 공유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인권재단에서 주최한 UN OHCHR(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방문, 네슬레 인권 담당자 간담회,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미팅에 참여하여 UNGC 한국협회 활동 및 기업과 인권 관련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첫째 날 총회는 Peggy Hicks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책임자와 Surya Deva 기업과 인권 유엔실무그룹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Peggy Hicks 책임자는 "UNGP의 세 가지 핵심 가치 중 효과적인 구제책 접근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자연재해, 대규모 이민 및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부흥 등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에서 인권에 대한 전 세계적 지지와 이해가 절실하다. 동 포럼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인권 보호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Surya Deva 의장은 "인권은 선택 사항이 아니며 정교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이 더 이상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여성, 어린이, 이민자, 장애인 등 구제책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동 포럼을 통해 기업의 인권 존중이라는 하나의 목표 속에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조 세션에서는 5명의 여성 리더들로 구성되어 인권 현황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Susi Pudjiastuti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 산업에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시설이나 제도 기반이 취약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원양어업을 포함한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날 UNGC 러시아협회에서 주관한 <UNGC 각국협회 경험공유> 세션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및 중공업 분야 국유기업들의 UNGPs 이행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였습니다. 러시아 철강회사인 Severstal, 금 생산기업인 Nordgold, 세계 2 위의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RUSAL, 오일·가스 분야의 Sakhalin Energy 에서 인권 실사(Due diligence), UNGP 이행 전략, 파트너십, 지역사회 피드백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Severstal 발표자는 “철강 분야가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망 모든 단계에서 책임 있는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며 인권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Sakhalin Energy 에서는 “사업 활동에 앞서 인권을 포함한 리스크와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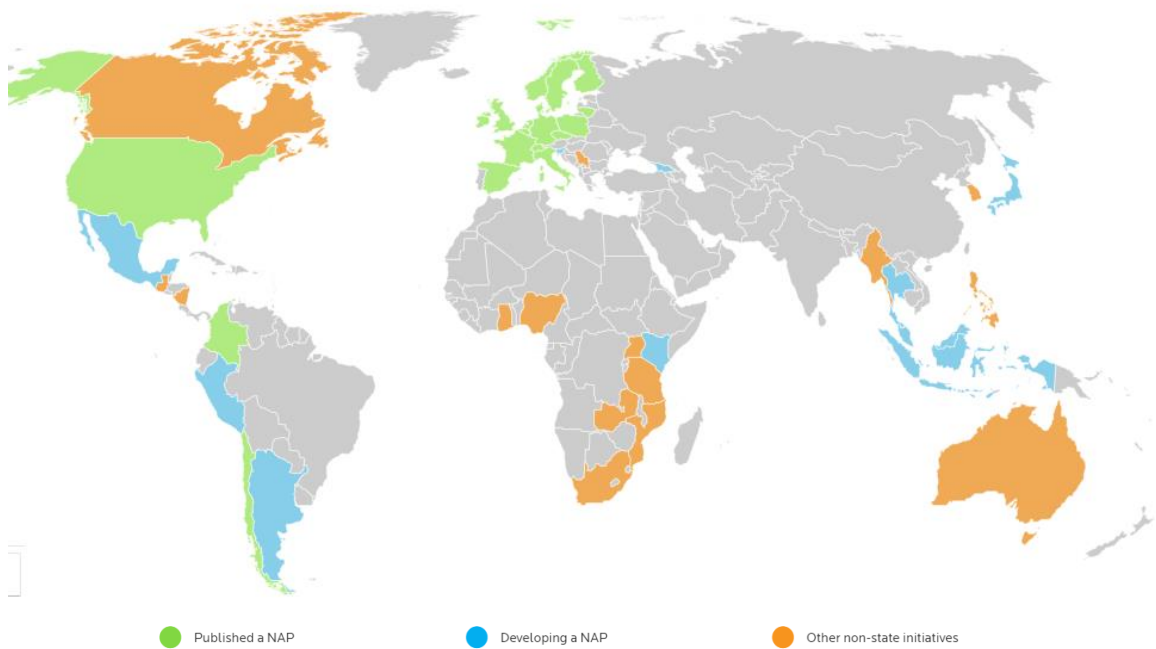
마지막 날 개최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과 구제 실현> 세션에서 Michael Addo 기업과 인권 유엔실무그룹 위원은 기업과 인권 NAP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NAP가 UNGPs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매개체라 말하며, NAP의 중요성을 점점 더 많은 국가와 기관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AP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 NAP 수렴 과정에서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교한 NAP 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이해의 창구가 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NAP 수립 국가들에 감사를 표했으며, 취약계층 및 소수자들에게 더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

유엔은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채택에 이어 각국의 국가행동계획(NAP) 수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EU 14 개 국가를 포함한 21 개국은 이미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일본, 태국 등 21 개 국에서는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9 개 국가에서는 정부부처가 아닌 국가인권기구 또는 시민단체에서 NAP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 수립 국가 현황



폐막 총회에서 Zeid Ra'ad Al-Hussein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 포럼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의제가 얼마나 많은 이슈들을 포함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며, SDGs 등 글로벌 목표와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인권의 기본 가치와 원칙들을 따라야만 사회가 안전할 수 있다. 각국 정부가 인권 존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기업들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Surya Deva 기업과 인권 유엔실무그룹 의장은 “국가가 앞서 나가야 하며, 기업들도 이에 동참해 인권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 아님을 강조하며, “각 피해자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누구도 인종,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인권 유엔실무그룹이 앞으로도 국가와 기업의 인권 보호 의무 및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6 년 방한하여 국내 기업 내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2017 년에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문제에 대한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4 장(기업과 인권에 대한 인식)과 6 장(결론 및 권고)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언급되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에서 2015 년에 개최한 <코리아 리더스 서밋>의 '기업과 인권' 세션을 사례로 들며,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내 기업들의 높아진 관심을 조명하며,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87 항으로 “UNGC 한국협회 및 관련 협회에 참여하여 이행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이행 경험을 학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UNGPs 의 세 축 중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진전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기업인권모니터링 의무법 (The French duty of vigilance law)>을 올해 입법하면서 인권 실사(Due Diligence) 및 공시 의무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게 해외 자회사 등 공급망(supply chain) 내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민사적 성격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2 년부터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전세계 매출이 1 억달러가 넘는 판매자와 제조업자는 '인신매매, 노예노동'의 위험성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인권 이슈가 강화되어 개정된 국제노동기구(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에 대한 삼자선언>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위에서 다룬 주제들을 포함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권존중 책임 강조 및 국제사회의 기업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인권이 강화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에 인권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인권경영 개선 및 내재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협회는 우리 기업들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안내 및 이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이슈에 관해 국제동향 파악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 연구 사업 등도 추진 예정이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고 1.

지난 회의 주제

2012년: Making human rights a priority for business

2013년: Implementing the UN Guiding Principles: Regional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14년: Advanc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globally: alignment, adherence and accountability

2015년: Tracking progress and ensuring coherence

2016년: Leadership and Leverage: Embedding human rights in the rules and relationships that drive the global economy

참고 2. [프로그램 유첨](#)

참고 3. [주요 회의 영상 바로가기](#)

3. 주한EU대표부, 유럽상의회가 함께 하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개최 결과 (12/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주한 EU 대표부, 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12월 5일(화) 서울스퀘어 3층 컨퍼런스룸에서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FPC)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 해로 3차 년도를 맞이한 페어플레이어클럽 프로젝트는 주한외국대사관 및 외국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외국계 기업 및 해외 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반부패 행동향과 기업 벤치마킹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80여 개의 기업 및 기관이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을 통해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조엘 이보네 주한 EU 대표부 공사참사, 스벤-에릭 바텐버그 주한유럽상공회의소부장 및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엘 이보네 공사참사는 개회사를 통해 "부패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회 보장,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원활한 공공 지출의 투자를 저해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부패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EU에서만 1200억 유로에 이르며,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GDP의 5%에 해당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패 척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개회사에서 스벤-에릭 바텐버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장은 "좋은 경제는 좋은 기업으로부터 시작되고, 좋은 기업은 좋은 거버넌스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준법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유럽의 경우 EU 회원국의 대부분이 유엔반부패협약과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고 부패방지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과 EU의 교역 규모가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대유럽연합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유럽의 정책과

반부패 시스템을 인지하고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회사에 이어 조엘 이보네 주한 EU 대표부 공사참사와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와 과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보네 공사참사는 EU 반부패 규제 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EU의 반부패 활동의 중심은 'EU 회원국의 반부패 활동 모니터링/분석, EU 법과 정책의 반부패 조항 강화, EU 회원국 및 전 세계의 반부패 정책 지원'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4년 'EU 반부패 보고서'가 채택된 이래 EU 회원국의 청렴성과 반부패 노력을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공공 조달, 행정, 비즈니스 환경, 헬스케어와 같은 고위험군 분야에 대해 특별히 관리감독 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와 과장은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며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 이후 공직자 청렴도 기준이 높아지고, 대중의 기대 수준이 바뀌는 등 윤리적인 민감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강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직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며, 기업 및 교육 분야에서도 접대나 청탁이 현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종삼 과장은 청탁금지법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상 중인 여러 규정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지멘스(주)의 기업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효신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주) 과장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준법 경영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경영진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몸소 체감한 경험을 공유하며 컴플라이언스 게임, 퀴즈 등 자사에서 시행 중인 여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핫라인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정보 이용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인 박지영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상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에 관해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제약산업의 정보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규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컴플라이언스는 담당자뿐만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라는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근 지멘스(주) 윤리경영실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박종근 윤리경영실장은 과거 지멘스의 부패 스캔들 이후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사적인 준법 프로그램을 재구축하였으며, 청렴 문화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실행 중인 지멘스의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과의 '청렴성 이니셔티브' 전개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펼치고 있는 지멘스의 공동 노력에 관해 설명하며, 준법은 최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하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기업사례 발표에 이어 강주현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는 페어플레이어클럽 프로젝트에 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을 안내하며 참석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페어플레이어클럽 참여 기업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준법윤리경영 자료를 공유하며 주한 EU 대표부 및 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오는 12 월 20 일(수) 한국중국상회,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함께 '중국의 사회책임경영(CSR) 및 반부패 정책 동향'에 관한 FPC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페어플레이어클럽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FP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페어플레이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 안내



페어플레이(Fair Play) 반부패 서약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클럽(Fair Player Club)에서는 Fair Play 반부패 서약을 통해 한국의 산업별 준법·윤리 경영 증진 활동에 동참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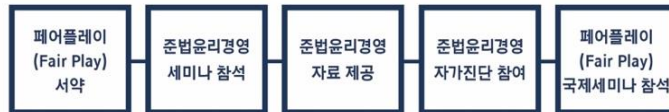
페어플레이클럽은 세계은행과 독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5년부터 3년간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준법·윤리 경영 교육, 연구 및 다양한 인식제고 확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는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기계, 철도, 해외건설, 의료산업 등의 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산업별 리스크 예방 및 준법·윤리경영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으며, 2차년도는 7대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및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방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와 준법·윤리경영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올해는 유럽·아시아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외 진출 한국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확립과 공급망 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FPC 참여 기업 혜택 및 기대효과

- 반부패 관련 국제 기준(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UK 뇌물수수법 등) 소개 및 국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민관협력을 통한 준법·윤리경영분야 교류 확대
-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세미나 참석 후 수료증 제공, 해당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노력에 대한 국내외 홍보
- 준법·윤리경영 자가진단 툴 및 관련 자료 제공



주최: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주관: GCEF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페어플레이클럽 사무국 | www.fairplayerclub.k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객 글 주임 연구원 / 소 완 연구원
 T. 02-749-2182/2149 | F. 02-749-2148 | E. fpc@globalcompact.kr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오지효 대리 / 김이름 연구원
 T. 02-714-5964 | F. 02-749-2148 | E. infogcef@gmail.com

[\[페어플레이 서약서 다운로드\]](#)

본부 소식

1.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 사례 - 방문판매로 생명을 살리는 리빙 굿즈(Living Goods)



- 프로젝트 리더: 셴 처치(Shuan Church) 리빙 굿즈(Living Goods) 대표
- 프로젝트 지역: 우간다 캄팔라

19세기 말, 한 책 방문판매원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에게 직접 미용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방문판매 기업, 에이본(Avon)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공적인 이 브랜드의 방문판매 정책과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사명은 여행 의류계 선두기업인 트래블스미스 아웃피터(TravelSmith Outfitters)의 창립자이자 열정 여행가인 [척 슬러터\(Chuck Slaughter\)](#)에게 영감을 주었고, 결국 2007년, 우간다에서는 [리빙 굿즈\(Living Goods\)](#)가 설립되었습니다.

코네티컷(Connecticut) 출신의 이 기업가는 에이본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대신 립스틱과 향수를 고품질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리빙 굿즈의 [커뮤니티 헬스 프로모터\(Community Health Promoters, CHP\)](#)들은 필요로 하는 이들의 문 앞까지 의약품을 배달합니다. 에이본이 개인 영업 사원들에게 유연고용제와 멘토링,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해 이들이 소규모 기업가로서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돕도록 지원했듯, 리빙 굿즈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영업 모델은 각 여성 종업원들이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케냐 소재의 한 자선단체에서 근무 후, 슬러터는 아프리카의 시골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가게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는 커뮤니티 내 보건인력 수가 부족해 많은 지역에서 건강 문제와 의료 서비스 및 보건 교육에 취약하고 더불어 불법 복제약 문제도 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빙 굿즈는 직원들을 교육시켜 각 가정을 방문해 이웃들에게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CHP들은 유아 사망의 가장 주요한 원인들을 치료 및 진단하며, 임산부와 신생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에이본의 사업 모델을 응용해 경쟁력

있는 가격의 항말라리아 치료제과 태양광 조명, 여성 위생용품, 비누, 구충제, 피임기구, 영양보충제, 말라리아 치료제, 깨끗한 요리기구와 휴대폰 충전기 같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몇몇 남성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마을 의사들은 대부분은 공동체 내 든든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로, 이들은 성과급을 받으며 일하는 것에 매우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이본의 사업 모델처럼, 리빙 굿즈의 시스템의 기반은 '신뢰'에 있습니다. 고객들은 아이가 아플 때면 언제든지 리빙 굿즈 판매원에게 연락합니다. 다양한 제품이 가득한 가방과 리빙 굿즈의 [스마트헬스\(SmartHealth\)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CHP들은 말라리아와 같은 흔한 질병을 진단하는 법에 대한 훈련을 받아 긴급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아주 빠른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라고 리빙 굿즈 우간다의 알프레드 와이즈(Alfred Wise) 총괄은 말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바로 파악하고,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판매원들은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 약을 복용할 시간뿐만 아니라, 할인 정보를 제공하고 임산부를 위한 건강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보조금을 통해 시장 가격보다 낮은 평균 50센트인 저렴한 치료비용과 더불어, 언제나 재고가 충분한 분배 플랫폼인 리빙 굿즈는 소규모 기업가들이 제품 판매와 건강 진단을 통한 인센티브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건강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리빙 굿즈는 연간 인당 2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5세 이하 유아 사망률을 25%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간다와 케냐에서 운영되는 리빙 굿즈는 미얀마와 잠비아에도 협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자사의 모델이 채택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빙 굿즈의 대표인 [션 처치\(Shuan Church\)](#)는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단체, 협력사, 그리고 정부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전 세계의 공동체 보건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큰 우선순위입니다.”라고 처치 대표는 말했습니다. “리빙 굿즈의 사업은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원하는 정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커뮤니티 보건인력들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도록 힘을 실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정신을 위한 스킨 어워드(Skoll Award for Social Entrepreneurship)의 수상자 중 하나인 리빙 굿즈는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케냐, 탄자니아와 인도를 포함한 새로운 시장에서 리빙 굿즈 모델을 재현할 역동적인 협력사를 찾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영상 보기](#)

2. 라틴 아메리카 리더들, 에콰도르에서 비즈니스 기회로써의 SDGs 대응방안 모색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라틴 아메리카 기업들의 2030 아젠다 기여](#)"를 모색하기 위한 고위급 지역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다년 간 전략, "비즈니스 기회로써의 SDGs 대응방안(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을 테마로 진행된 본 행사는 지역 내 2030 아젠다 달성에 있어 다 부문 협력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본 행사에 참석한 300여명의 대표자들 중 70%는 비즈니스 부문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정부, 시민사회, 유엔 산하기구 및 학계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미국 등13개 UNGC 협회에서 토론에 참여해, 지역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와 에콰도르의 고위급 정부 대표자들과 에콰도르 유엔 상주관이자 유엔여성기구 대표부 대사가 발표를 진행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 유엔개발계획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협회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시민사회와 기업 전문가들도 지속가능한 다자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행사 중 언급되었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관의 다자 간 정책 토론을 통한 글로벌 목표달성 관련 국가 계획 형성 및 시행의 중요성
- 글로벌 목표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과 연계한 인권 기반 접근방식 적용 기업들의 임팩트
- [여성역량강화원칙](#) 도입 시 기업의 긍정적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방법
- 혁신적인 금융 도구와 지속가능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민관협력

본 행사는 2030 아젠다의 진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기업들 간 협력의 임팩트에 대해 강조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UNGC 에콰도르 협회는 각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범이 된 에콰도르 기업들을 수상하는 'SDG 어워즈(SDG Awards)'을 진행했습니다.



- [원문보기](#)
- [이벤트 프로그램 보기](#)
- [UNGC 지역협회](#)에 대해 더 알아보기
-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캠페인에 대해 더 알아보기

SDGs 소식

1. [Goal 4, 12] 국내 SDGs 우수이행 사례 - DGB금융지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 MATRIX

SDGs	8 12	3 12	4 5	7 13 15	10 11
DGB 5대 전략	미래전략경영 Future-oriented Strategic Management	고객만족경영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조직역량강화 Enhancement of Organizational Competence	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목적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시장 변화와 금융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모색함	고객만족은 신규고객 확보, 기존고객 유지에 필수적이며, 고객의 요구를 성실히 반영하고, 경제·사회·환경 영역을 고려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한 인재 확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임직원 역량 개발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강화 및 임직원 삶의 질 향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행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위험 및 변화관리,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환경경영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DGB금융그룹의 성장은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없이는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동반성장을 통한 그룹과 협력업체,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
기회 (주요이슈)	- 핀테크 강화 -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및 금융 자본 확충 - 이해관계자 신뢰도 제고 - 윤리경영, 위기관리, 거버넌스 관련 역량 강화	- IT보안강화 및 금융 거래 사고방지 요구 증대 -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고객 개인정보 보호 - 명성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친환경, 사회,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증대 -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평가 강화 - 친환경 금융상품 개발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 성과향상을 위한 애사심과 동기부여(리더십, 관리, 협력) - 양성평등 강화	- 이해관계자 신뢰도 제고 - 윤리경영, 위기관리, 거버넌스 관련 역량 강화 - 친환경, 사회,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증대 - 자연자원의 활용 강화 - 친환경 시스템 운영 - 제품 및 서비스 환경영향 평가	- 이해관계자 신뢰도 제고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 명성 및 브랜드 가치 제고
2016년 주요활동	- DGB자산운용 출범 - DGB캐피탈 라오스법인(DLLC) 출범 - 지방금융사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K뱅크)	-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상품 개발	- 임직원 직급별 교육과정 확대 및 사이버 연수제도 개편	-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역기업과 환경을 살리는 녹색금융 우대펀드 조성 및 운영	-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 -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및 지원
2016년 주요성과	- 총자산 53.5조 원 - 당기순이익 2,877 억원 달성 - DJSI Asia Pacific 및 Korea 7년/8년 연속 편입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평가 10년 연속 최우수은행 선정	- DGB대구은행 은행영업 필수자격증 취득률 전 직원의 88.5% 달성 - 관리직 여성 비중 3년 연속 증가	- CDP KOREA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2년 연속 선정 - 온실가스 저감량 402.14tCO2e	- DGB금융교육 봉사단을 통한 430 여 회, 2만 4천여 명 금융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제공업체 중 5개 기업 '월드클래스 300' 선정



Goal 4. 양질의 교육: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 제공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

•DGB 금융교육센터 운영

DGB 금융그룹은 2016 년 사회적 취약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DGB 사회공헌재단 산하 DGB 금융교육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센터 내 주요 활동인 'With-U 금융교육봉사단' 활동은 임직원 및 지역 대학생 50 여 명으로 구성되어 금융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멘토가 되어 매월 용돈지원 및 학습지도, 문화체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DGB 사회공헌재단 및 DGB 금융교육센터는 나아가 멘토들의 지속적인 멘티 가정방문활동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녹색금융

기업과 지역환경을 살리는 녹색금융 우대펀드 운영 대구염색산업단지는 1980 년 조성된 이후 장기간 집단적인 화학물질 사용으로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DGB 대구은행은 이러한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역 내 환경경영 우수 중소기업에 대출금리를 1.0~2.0% 우대하는 녹색금융 우대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녹색금융 우대펀드는 대구염색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환경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환경경영 우수 기업에 우선 적용되어 지역기업이 환경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DGB 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해 금융기관으로서 환경을 고려한 투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SDGs 우수 이행 사례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발행한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의 수록 내용 중 일부입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입하고, 보고 체계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The Global Goals  

“SDGs 세부목표 12.6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활동 도입 및 정보 보고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1992)에서 채택한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 및 산업이 사회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코피아난 전(前)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경제포럼(1999)에서 인권, 노동, 환경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를 발족하였습니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SSD, 2002)에서는 기업과 산업이 UNGC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양식을 위한 정책과 방법을 도입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산업의 사회 환경 성과를 개선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4 QUALITY EDUCATION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이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대폭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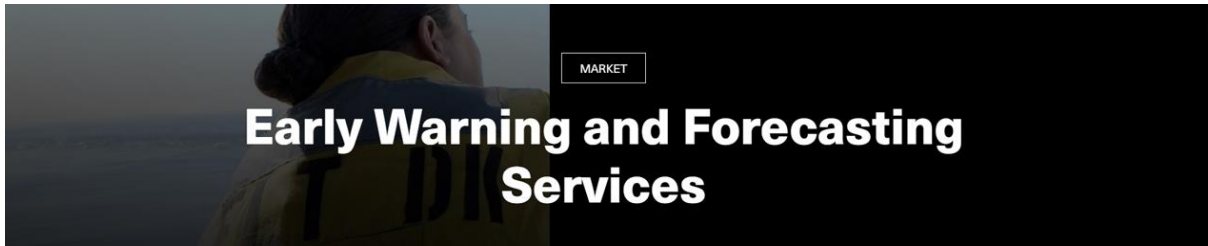
The Global Goals  

“SDGs 세부목표 4.4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의 수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유네스코(UNESCO)의 ‘1962 전문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에서 기술, 직업 교육(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VE)을 처음 집중 조명하였고, ‘2001 전문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권고사항 개정판’에서는 기술 및 직업 교육이 고용과 취업기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교육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1960-70년대 초 개도국을 지원하는 양자, 다자 협력의 핵심 요소였던 기술 발전(Skills Development)과 기존의 기술 및 직업 교육(TVE)을 더한 TVSD는 1996 정책강령과 MDGs 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0년 EFA 목표 3번에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생활능력과 학습 촉진**에 포함되어 추진되었고, 이에 SDGs에서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SDGs 시장 기회] 조기 경보 및 예보 서비스



기상 이변으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첨단 기상 예보 서비스는 사업 아이템으로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맞서 살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은 열대 폭풍우와 용해수 홍수 같은 기상이변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하여,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 줍니다.

MARKET KEY NUMBERS



수문 기상학 서비스 개선에
10억이 투자될 때마다
더해지는 혜택 규모



2016년
날씨 예보 서비스의
시장 규모



기상 서비스가 개선될 경우
저소득 및 중간소득 경제의
국가들이 절약할 수 있는
재산 피해액

센서 기술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조기 경보를 위한 데이터 수집, 처리와 전달을 이전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덕분에 이 시장 기회는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낮습니다. 대신 오픈 데이터를 보호와 국제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시장 규모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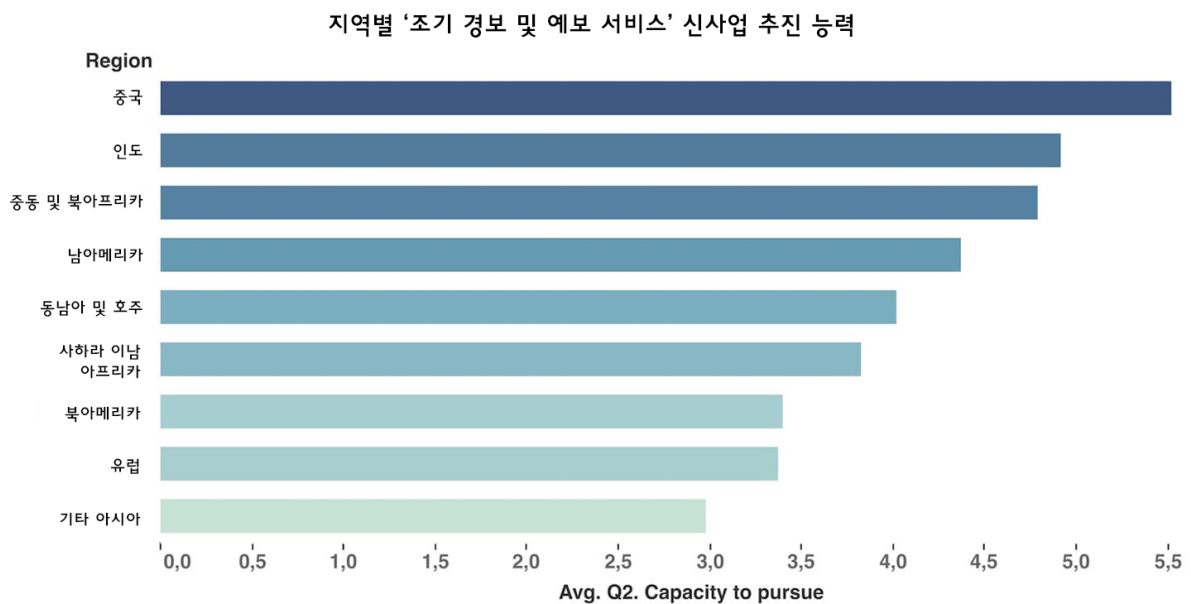
조기 경보 및 예보 서비스로 인해 구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은 지출비용의 최소 2에서 5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과 의료 서비스업을 포함한 여러 부문은 기상이변이 없을

때에도 더 나아진 기상 예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기상 서비스에 투자할 경우, 그 혜택은 투자 비용의 최대 30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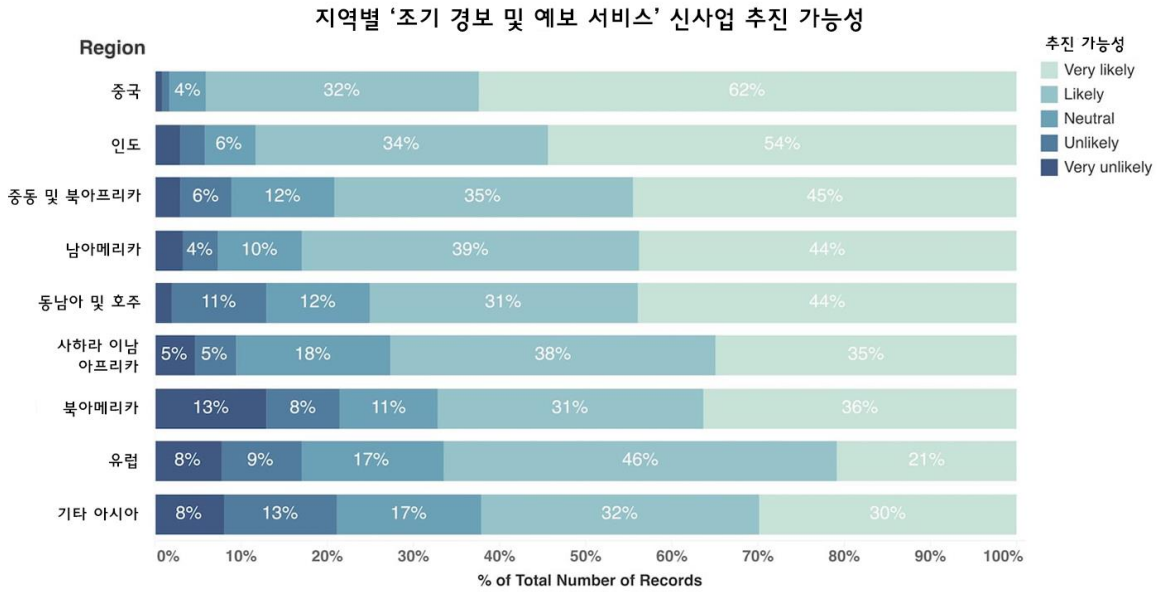
그 밖에도 조기 경보 및 예보 서비스 시장은 도시 계획가, 정치인들에게 향후 10년 간 어떤 지역이 기상이변의 위협을 받을지 예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으로 연간 수조 달러에 달하는 건축 및 인프라 투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조기 경보 및 예보 서비스는 북아메리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시장 기회로,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타 지역에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 시장 기회는 기상이변을 다루는 다른 시장 기회들을 모두 앞질렀습니다.



금융 부문 응답자들은 조기 경보 및 예보 서비스가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신사업을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 및 제조업 부문 응답자들의 경우, 해당 시장기회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이로 인한 신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훨씬 적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기업 및 시민사회 내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회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는 [2015 글로벌 기회 리포트\(Global Opportunity Report 2015\)](#)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 및 예보 서비스'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 본 콘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서스테인리아(Sustainia), DNV GL이 함께 참여한 [Global Opportunity Explorer](#)에서 발췌, 번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회원사 뉴스

1. 롯데 "내년부터 연장근무방지 'PC오프제'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롯데, 내년부터 업무시간 외 '카톡 지시' 금지한다

기사입력 2017/12/06 10:14 송고

기업문화위 2차 정기회의...연장근무방지 'PC오프제'도 전 계열사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롯데가 내년부터 업무시간 외 '카톡 지시'를 금지하고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19개 계열사에서 운영 중인 이른바 'PC오프제'를 전 계열사에 일괄 도입하기로 했다.

롯데 기업문화위원회는 5일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공동위원장인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과 이경목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내·외부 위원, 현장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정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문화위는 회의에서 PC오프제 확대와 함께 초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업무시간 외 모바일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모바일 오프'(Mobile OFF) 제도도 내년 중 계열사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 롯데, 업무시간 외 '카톡 지시' 금지 및 불필요한 연장 방지를 위한 'PC오프제' 전 계열사에 일괄 도입.
- 이 밖에도, 남성의무육아휴직제 또한 좋은 반응에 힘입어 강화될 방침.
- 황각규 대표, "기업문화 변화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지를 갖고 구성원 모두와 함께 해 나가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원문보기 \(연합뉴스\)](#)

2. 김동연 "LG는 협력업체 상생 모범"...구본준 "8500억원 상생기금 조성할 것"

김동연 "LG는 협력업체 상생 모범"...구본준 "8500억원 상생기금 조성할 것"

김은정 기자

입력 : 2017.12.12 14:42 | 수정 : 2017.12.12 14:43

김동연 부총리, 대기업 첫 방문지로 LG그룹 찍은 이유 밝혀
LG그룹 내년 1만명 채용, 대규모 상생기금 조성 계획 내놔 '화답'
김동연 "저는 상고 출신, LG CEO는 공고 출신...반갑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그룹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구본준 LG 부회장과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 김동연 경제부총리, "LG그룹은 협력업체 상생에서 모범이 되는 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아이디어를 기대한다."
- 김 부총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상생협력 모델이 우리 경제 전반에 퍼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이에 LG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에 8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내년 19조 원 투자 및 1만명 고용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힘.
- [원문보기 \(조선일보\)](#)

3. 신한금융의 통큰 사회공헌...2700억 쏟아



신한금융의 통큰 사회공헌...2700억 쏟아

2020년까지 '희망사회' 추진...소외계층·중소·소상공인 지원

기사입력 2017.12.12 17:55:14 | 최종수정 2017.12.12 17:59:34

신한금융그룹이 2020년까지 소외 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총 2700억원을 지원한다. 단순히 대출 규모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전 그룹사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손잡고 도시재생 사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돕는 등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포용적·생산적 금융'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신한금융지주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저신용자 재기 지원을 위해 고용부와 연계해 신용회복지원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연 1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예상 예산(억원)
저신용자 재기 지원	300
저소득 여성 취업 지원	150
위기 가정 재기 지원	60
중금리 대출 플랫폼	
청년 해외 취업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설립	690
지자체 도시 재생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지원	
4차 산업혁명 청년 교육 지원	
기존 활동	1,500
합계	2,700

※ 자료=신한금융지주

- 신한금융,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손잡고 '포용적·생산적 금융'에 적극 동참하기로 함.
-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 생계비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
- 조용병 회장, "희망사회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원문보기 \(매일경제\)](#)

CSR 뉴스

1. 농축산 선물 올리고 경조사비 내리고...권익위 표결 없이 의결

'서울신문

농축산 선물 올리고 경조사비 내리고...권익위 표결 없이 의결

입력: 2017-12-11 22:46 | 수정: 2017-12-12 00:51

경조사 현금 5만원+화환·조화 5만원 허용
원·재료 50% 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 10만원
"입법 취지 완화 시도 반대" 부대 의견도 첨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수' 끝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의결했다. 농축수산물 선물액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지난 전원위원회에서는 일부 외부위원들이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선물가액 한도를 늘리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축·어민의 어려움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의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액 한도 5만원 →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5만원으로 개정. 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 유지.
 - 일부위원들, "청탁금지법이 안정화되기 전에 시행령을 개정하면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였으나 농·축·어민의 어려움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의결.
 - 본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화훼농가 등에 악영향을 준 것을 고려한 것.
- [원문보기 \(서울신문\)](#)

2. 국세청,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전면 차단 나선다



국세청,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전면 차단 나선다

2017-12-12 14:19

이달 국제통합보고서 첫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번달 처음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거래 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에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끝난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국내 사업장은 내년 1월 2일까지 2016년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 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 가격은 여러 나라에 흩어진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들이 서로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뜻한다.

- 국세청,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이번달부터 시행.
- 한국, OECD 권고 등에 따라 2015년 이 제도 도입, 올해 처음 시행. 연결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음.
- [원문보기 \(헤럴드경제\)](#)

3. 일과 삶 중 선택은? 10명 중 7명 "연봉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

중앙일보

일과 삶 중 선택은? 10명 중 7명 "연봉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

[중앙일보] 입력 2017.12.11 10:34 수정 2017.12.11 10:36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균형있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워라밸(워크 앤 라이브 밸런스,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가운데,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연봉보다 이러한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 닐슨코리아]

-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 연봉보다 워라밸(워크 앤 라이브 밸런스, Work and Life Balance)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 닐슨코리아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 근무량이 많고 연봉이 높은 회사보다, 연봉이 적어도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75.5%. 특히 2030세대 워라밸 추구 추세가 확연히 두드러졌음.
 - 최원석 닐슨코리아 전무,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원문보기 \(중앙일보\)](#)

4.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집중검사한다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집중검사한다

김형민 기자

입력 : 2017.12.12 12:00

금융감독원이 향후 검사의 중점사항을 금융사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등에 두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단기적 이익에만 매몰돼 소비자 권익을 뒷전으로 여기는 근본 원인을 금융사의 빈약한 지배구조 운영실태 때문으로 판단했다.

또 금융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감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골자는 ▲금융사의 수검 부담 완화 ▲제재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 확대 등이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단편적인 개별 위규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 위주의 검사 제재 방식에서 탈피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은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에 기인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 향후 검사의 중점사항을 금융사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등에 두기로 함. 특히 금융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부과할 것.
- 또한, 금융사 스스로 잠재 위험을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
- 일반 검사의 경우 금융사의 자율을 대폭 보장하며 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 검사 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견책 이하 등의 가벼운 제재를 제재심의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것.
- 고동원 혁신TF위원장, “금감원의 대국민 신뢰 회복 계기로 삼고 공정한 금융질서 회복과 국민을 위한 금융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원문보기 \(조선비즈\)](#)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2 월 2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12 월 2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 렉스코드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동서발전
- 유프러스건설
- 킨텍스
- 한국조폐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 2017 년 4/4 분기 연회비 납부 회원

기술보증기금, 삼덕통상, 기아자동차, 서울시복지재단,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유엔한국협회, 국민연금, LG디스플레이, 일성건설주식회사, 한국투명성기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현대모비스, 티비에이치글로벌,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 4/4 분기 납부기한: 2017 년 11 월 30 일까지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 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